



남선교회연합회 주관
소망가족 신앙수련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강사 :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일시 : 4월 1일(토) 오전 9:30

장소 : 소망교회 본당

CONTENTS

April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구원의 샘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2
깊어지는 영성	맛을 내는 소금처럼 김경진	4
목상에 붙임	배신 새라 코클리	6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4월 본문	마가복음·에스겔·고난주간 본문 1주(4/3) 2주(4/10) 3주(4/17) 4주(4/24)	16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사랑과 순종으로 꽃피는 열매 박기창·정숙연	54
소망사랑방	봄꽃 단상 김완진	92
이스라엘과 코메르 홀	현대 히브리어의 부활 홍성민	128
공간공감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홍성찬	164
이달의 기도	진실하신 영을 따라	168
COMMUNICATION		
문화읽기	<이니세린의 뱀시>을 통해 본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인간관계 황영미	170
소망마당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교회학교	174
예배자의 길	4월 우리의 고백 최창실·김경은·이영주	178
뿌리를 찾아서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 박경수·이근복	182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	루터의 영향을 받은 뒤러 허윤정	186
돌봄의 창	100세 시대, 생애 주기별 구강 건강 관리 이원유	190
소망뉴스		194



구원의 샘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더러운 것과 정돈되지 않은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글 김경진

우리가 아브람을 부를 때 따라다니는 칭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의 믿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일생에도 믿음 없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면, 그곳에서 목숨을 보전하고자 아내인 사래를 누이라고 부르기로 꾀를 냅니다(창 12:12-13). 미성숙한 그의 신앙은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며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명하셨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2장). 그럼에도 좀처럼 자식이 생겨나지 않는 현실에 아브람이 기도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창 15:2)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에게서 난 자라야 진짜 상속자가 될 것이다.”(창 15:4)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많아지는 나이를 보며 이번에는 사래가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보내서 아이를 갖게 하는 방책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고 자신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아브람과 사래를 묘사합니다(창 16:2-3).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갈이 아직 아이를 낳기도 전인데 사래가 그녀를 괴롭힙니다. 결국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주인을 피해 도망가고 맙니다. 그 길에서 여호와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 세였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브람의 나이가 99세에 이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래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을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시며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에 변함없으신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다”(창 17:18 중) 다 늙은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말을 고치시며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창 17:19).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된 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가 젖 떼기 시작할 즈음부터 이스마엘의 놀림이 시작되자, 사라가 서둘러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사라의 편을 드시며 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생겨난 결과물이었습니다. 미숙한 신앙의 부산물인 셈이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삭의 출생을 두고 ‘약속’을 따라 났다고 평가하지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갈 4:22-23). 두 사람은 시작부터 이미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아들 이삭 안에서 주시기로 약속한 열국의 백성을 볼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미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얻은 부산물과 단절하라고 말씀합니다. 응답 없는 현실 앞에서 나름대로 쌓아올린 것을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참된 자유자로서 살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짊어진 모든 멍에를 푸시고 끊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부름받은 자유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배신

글 새라 코클리



“어서 가서 네가 하려던 일을 하거라.”

우리는 수난 이야기에서 가장 문제적인 남성 인물인 유다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그렇듯 그는 교환에 바탕을 둔 경제와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예수의 수난과 영광에서 비롯된 새로운 질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으며 여인이 넘치는 사랑과 슬픔을 담아 향유를 바쳤을 때 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귀한 나드 향유를 ‘낭비’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전합니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유다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상을 넘어서는 인물입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전노이자 도둑이었으며 급기야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거꾸러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땅을 피로 물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때 유다는 무언극의 비극적인 인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을 포함해 유다에 관한 부정적인 묘사들만을 살펴보면 요한의 복음서가 유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보다 근원적인 면, 보다 미묘하고도 기이한 면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유다를 택하느니 사탄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과 배신이 얽혀 있다는 지독한 역설은 예수의 수난이라는 참혹한 사건을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그 모든 장면에서 유다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수난을 당하기 전 마지막 밤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두 차례에 걸쳐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특별히 가장 먼저 유다에게 빵 조각을 포도주에 적서 건넸습니다. 이어서 유다에게 조용히 지시합니다. “어서 가서 네가 하려던 일을 하거라.” 유다 없이 예수의 수난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이 지닌 가장 역설적인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신자인 유다가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점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유다를 언급하며 ‘넘겨주다’와 ‘배신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모두 집어넣음으로써 말놀이를 합니다. 유

다는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긴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였으며 이루어져야만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설사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로 인해 예수는 수난 사건으로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넘겨진’ 예수는 완전히 수동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전까지 예수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넘겨진’ 예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경이로운 일을 행했으나 이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칭송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를 경멸합니다. 전에 다른 이들을 살려주었던 이가 이제는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는 순수하고 수동적인 사랑의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유다가 저지른 배신의 결과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수난을 향해 나아갈 때 유다에 관한 질문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결함’의 핵심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배신과 (진실하고 신성한)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넘겨져야 했다면, 배신당하는 일이 예수의 사랑과 그가 겪을 수난을 위해 필요했다면, 왜 유다는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할까요?

배신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도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죄이고 이 배신은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난 이야기에 새겨져 있는 짙은 배신의 흔적을 우리가 억압하거나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배신, 우리가 당하는 배신은 그리스도 교가 전하는 사랑에 담긴 가장 깊은 의미로 우리가 ‘넘겨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빛으실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흘려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다의 진정한 비극은 베드로와 달리 저 가능성을 믿지 못했다는 것, 절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서 베푸시는 흘려넘치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연약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 참된 연약함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흘려넘치는 사랑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넘겨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분께서는 배신자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WORD

마가복음 · 에스겔 · 고난주간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에스겔 42:1-20

토요일 이사야 57:1 나 복수해 줄지어 나가

말씀 속으로

- 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길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길의 앞 문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Then the man led me northward into the outer court and brought me to the rooms opposite the temple courtyard and opposite the outer wall on the north side;
- 2 그 방들의 자리가 길에는 백 척이요 나서는 한 자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The building whose door faced north was a hundred cubits long and fifty cubits wide.
- 3 그 방 안쪽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물 세 되는 방들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을 향해 열 방의 방과 마주 대하였으니
Both in the section twenty cubits from the inner court and in the section opposite the pavement of the outer court, gallery faced gallery at the three levels.
- 4 그 두 방 사이에 통원 길이 있어 나서는 열 척이요 길에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니
In front of the rooms was an inner passageway ten cubits wide and a hundred cubits long. Their doors were on the north;

16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외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
 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
 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앞글을 천천히 읽어 봄

1.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의 방이 위치합니다(1-12).

성전과 사제를 죽임 죽임을 다한 뒤에 예후의 종사자 예스겔을 나타내었다. 그곳에는 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이 많은 밭은 복록된 땅을 할하여 위대한 나라로 번영케 하는 땅을 할하고 다른 한 곳은 구덩이가 있는 들에서 아래서 뿜고 올라갈수목 짐짐 일찍이 줄너나기때에 나지키지 못함 곧 복록된 땅을 버리고도 오로지 이쁜의 밭보다 선 것이 더 깊게 나 있을터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모두 불 붙말에도 가지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정들은 이를 가리켜 ‘거룩한 땅’ 즉 예후와를 가리켜 이라고 이름하리라 한다.

2.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03-20)

13-새로운 제도의 땅이 사슴들이 울음으로 전하며 울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가 하면, 제단에서 그러한 제물을 받는 옴도 이 제사를 통해 땅에 있는 거룩한 의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을 제사 제사장의 의복은 어려웠다. 겹겹이 다른 옷을 입고, 그들에게서 사슴을 맡긴 한 해마의 제사와 그 때에 온다. 즉 거룩한 사슴의 사슴은 앞에는 거룩하고 그 뒤에 경이 의복이 성전 가까이에서 취해 있는 행에서 드러났다. 제사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슴의 사슴이 사슴과 그 같은 옴이다. 사슴의 사슴과 그 옴은 앞에는 거룩한 제사와 그 같은 성전의 제사를 구별하는 의복을 내포한다.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옴은 거룩한 제사와 그 같은 사슴의 제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옴이다.

적용 | 달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보세요.

1. 성전 가까이에 위치한 제사장 법은 예제자로서 서약 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여호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합하는 축합의 흐름은 바깥에서 안으로 찾아 이방 가운데로 확장되는 이스라엘의 열광적인 미래를 일깨워 주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목상열기 | 마음에 외딴은 구절을 필사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7:6-9 *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 하나님은 온 땅이 왕이시니, 정복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니, 나그네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보았나니, 우리의 공평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지존하시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험과 칭찬 □

마가복음(10~12장)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터져 나온 직후에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신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8:33)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걷던 그를 부르시고 수제자로 기르시는 주님의 입술에서

이토록 매섭고도 마음을 도려내시는 말씀이 나오다니,

인간의 이해 범주를 뛰어넘는 주님의 다채로우신 사랑 앞에서 조용히 돌아볼 뿐이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맛을 내는 소금 그 어디에 선 우리 자신을.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찌르시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크고 작은 자를 실컷 논쟁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곧 그들을 따르지 않는 자를 금한다(9:38).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은 땅도 시시하다는 듯 하늘 위로 우뚝 서려는 야심을 드러낸다. 이래서 본말전도라는 표현이 탄생하였나 보다.

주님과 같은 길에서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었다면,

시작부터 다른 길을 고집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내며 힘 겨루기를 한다.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11:28)

스스로 존재하시어 하늘과 땅을 빚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에게

성전을 정결케 할 권한이 어디서 났느냐고 감히 되묻는다.

성전을 소굴 삼아 지위를 얻고, 이득을 얻으려는 강도 같은 자들이 말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드리워질수록 땅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밝히 세워질수록 혼돈이 그 무게를 더하여 간다.

무질서한 땅을 향하여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신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11:14)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이 말만 무성한 사람들을 던지시 가리킨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모양만 갖춘 부자 청년은 결국 제 갈 길에 나선다(10:22). 그의 뒷걸음질에서 실은 주인에게 바칠 열매가 없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 완악한 농부의 심정을 발견한다(12:1-12).

그런데 그 사이, 어린아이와 길가에 앉은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등장한다.

이들은 다른 생각을 품으며 분열을 일삼거나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인을 도모하지 않았다.

지음받은 형상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맛을 내는, 조금 같은 인생이었다.

서로를 속고 속이며, 아니 스스로를 속고 속이며 없는 열매도 과시하는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그 사랑에 눈을 뜨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예비된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10:52)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토)	에스겔 42:1~20	제사장 방과 성전 사면 담의 측량
3~8일 고난주간		
3(월)	요한복음 2:13~22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4(화)	요한복음 6:53~59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5(수)	요한복음 8:42~47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6(목)	요한복음 10:7~18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7(금)	요한복음 11:17~27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8(토)	요한복음 16:25~33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10~15일 주간		
10(월)	에스겔 43:1~12	성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1(화)	마가복음 9:38~50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시는 인생
12(수)	10:1~12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을 향한 경고
13(목)	10:13~16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14(금)	10:17~31	부자 청년 이야기
15(토)	에스겔 43:13~27	번제단 측량과 봉헌
17~22일 주간		
17(월)	에스겔 44:1~14	레위 제사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18(화)	마가복음 10:32~45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
19(수)	10:46~52	거지 맹인 바디매오의 구원 사건
20(목)	11:1~11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21(금)	11:12~19	성전 정화 사건
22(토)	에스겔 44:15~31	사독 자손 제사장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24~29일 주간		
24(월)	에스겔 45:1~8	땅 분배
25(화)	마가복음 11:20~26	무화과나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26(수)	11:27~33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는 바리새인
27(목)	12:1~12	포도원 농부 비유
28(금)	12:13~17	세금 논쟁
29(토)	에스겔 45:9~25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4

April 2023

SUN

MON

TUE

WED

2

3

4

5

9 부활 주일

세례·입교식

10

11

12

16

17

18

19

권사회 월례회

23/30

24

25

26

5	S	M	T	W	T	F	S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HU	FRI	SAT
		1 소망가족 신앙수련회
6 고난주간 목요성찬	7 고난주간 금요일배	8
13	14 여전도회 연합예배	15
20	21	22 유아세례교육
27	28	29



말씀 속으로

- 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Then the man led me northward into the outer court and brought me to the rooms opposite the temple courtyard and opposite the outer wall on the north side.

- 2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쉰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The building whose door faced north was a hundred cubits long and fifty cubits wide.

- 3 그 방 삼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Both in the section twenty cubits from the inner court and in the section opposite the pavement of the outer court, gallery faced gallery at the three levels.

- 4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 척이요 길이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In front of the rooms was an inner passageway ten cubits wide and a hundred cubits long. Their doors were on the north.

-
- 5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좁아짐이라

Now the upper rooms were narrower, for the galleries took more space from them than from the rooms on the lower and middle floors of the building.

- 6 그 방은 삼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The rooms on the third floor had no pillars, as the courts had; so they were smaller in floor space than those on the lower and middle floors.

- 7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쉰 척이니

There was an outer wall parallel to the rooms and the outer court; it extended in front of the rooms for fifty cubits.

- 8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

While the row of rooms on the side next to the outer court was fifty cubits long, the row on the side nearest the sanctuary was a hundred cubits long.

- 9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The lower rooms had an entrance on the east side as one enters them from the outer court.

- 10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On the south side along the length of the wall of the outer court, adjoining the temple courtyard and opposite the outer wall, were rooms

- 11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with a passageway in front of them. These were like the rooms on the north; they had the same length and width, with similar exits and dimensions. Similar to the doorways on the north

- 12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were the doorways of the rooms on the south. There was a doorway at the beginning of the passageway that was parallel to the corresponding wall extending eastward, by which one enters the rooms.

-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Then he said to me, "The north and south rooms facing the temple courtyard are the priests' rooms, where the priests who approach the LORD will eat the most holy offerings. There they will put the most holy offerings - the grain offerings, the sin offerings and the guilt offerings - for the place is holy.

-
-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Once the priests enter the holy precincts, they are not to go into the outer court until they leave behind the garments in which they minister, for these are holy. They are to put on other clothes before they go near the places that are for the people.”

- 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When he had finished measuring what was inside the temple area, he led me out by the east gate and measured the area all around:

-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He measured the east side with the measuring rod; it was five hundred cubits.

- 17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He measured the north side; it was five hundred cubits by the measuring rod.

42:10

10절로 12절은 히브리 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의역하였음

18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He measured the south side; it was five hundred cubits by the measuring rod.

19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Then he turned to the west side and measured; it was five hundred cubits by the measuring rod.

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So he measured the area on all four sides. It had a wall around it, five hundred cubits long and five hundred cubits wide, to separate the holy from the commo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의 방이 위치합니다(1~12).

성전과 서쪽 건물 측량을 마친 후에 여호와와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북쪽 뜰 방향으로 갑니다(1절). 그곳에는 방 두 개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여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여 위치합니다. 총 삼층으로 구성된 골방 앞뜰을 향한 방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다른 방 곧 북쪽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방은 길이가 총 백 척으로 이전의 방보다 쉰 척이 길게 나 있습니다. 두 방은 흥미롭게도 북쪽 뜰뿐만 아니라 남쪽 뜰 방향에도 자리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둘러싸는 형태를 가집니다.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 ‘거룩한 방’ 곧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13~20)

13~14절은 제사장의 방이 사용된 용도를 전하여 줍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은 제사에 바칠 제물을 보관하였는가 하면, 제단에서 조리한 제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입는 거룩한 의복을 보관하는 방으로도 쓰였는데, 달리 표현하자면 거룩한 의복을 갖춘 채로 제사장의 외출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다른 옷을 입거나 다른 곳에서 먹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될 필요가 있었음이 시사됩니다. 이렇듯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교훈이 성전 가까이에 위치한 제사장 방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사장 방의 측량이 끝나자 다음으로는 성전을 둘러싼 사면 담의 측량이 시작됩니다. 각 담은 동서남북 길이가 각각 오백 척으로 정사각형 형태를 띠니다. 완벽한 대칭적인 구조는 성전의 위엄을 표현하는 동시에 성전과 세상을 구별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한편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방, 제사장의 방에서 담의 측량이 이루어진 흐름 속에서 세상으로 파송될 백성의 미래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성전 가까이에 위치한 제사장 방은 예배자로 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 줍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모하는 하루로 세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향하는 측량의 흐름은 바깥에서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스런 미래를 암시합니다. 성전 측량 기사를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7:6~9 ⁶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⁷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⁸ 하나님은 못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⁹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4/2~8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뵈게 될 것이다.

(시 11:7)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요한복음 2:13~22

월요일

오늘의 찬송 144 예수 나를 위하여

 말씀 속으로

-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men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area,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
-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Then the Jews demanded of him, "What miraculous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three days."

-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The Jews replied, "It has taken forty-six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three days?"

-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2:17 시 69:9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13~17)

물이 포도주로 변환된 첫 번째 표적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2:1~12). 그리고 이어지는 본 단락은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사건을 소개하며 정결함의 표상을 이어 갑니다. 때는 ‘유월절’, 유대인에게는 최대의 명절로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며 정결 의식을 행할 즈음입니다(13절).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성전이 도리어 정결함이 필요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물로 사용될 소와 양과 비둘기가 벉터이 판매되었는가 하면, 한편에는 값을 더 부르며 성전제로 환전해 주는 장사꾼의 소행이 판을 칩니다(1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제사를 드리는 모양만 갖춘 기도하는 집을 보시며, 주님은 진노에 진노를 더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유익과 편의대로 갈취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도’라 칭합니다(막 11:17).

2.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18~22)

그야말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버린 성전을 거니시며 주님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 주겠소?”(18절) 딱히 그럴 듯한 권한도 없어 보이는 주님이 성전을 휘저으며 자신들이 세운 것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자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권한을 따지는 인간의 어리석은 현실이 드러나는 이때에, 주님의 일침이 가하여집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19절) 온갖 누룩과 악한 소행으로 가득 찬 이곳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말씀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는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여 스스로의 유익을 탐하는 거짓된 믿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2.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8:2~3,8~10 ²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 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 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³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⁸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⁹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¹⁰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4

요한복음 6:53~59

화요일

오늘의 찬송 216 성자의 귀한 몸

 말씀 속으로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This is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Your forefathers ate manna and died, but he who feeds on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He said this while teaching in the synagogue in Capernau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53~55)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튿날’이 지났을 때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속에 위치합니다. 즉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의 ‘살’이라는 표상에 기대어 전개되고 있습니다(53절). 앞서 주님은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표적의 주인이신 그분보다 표적 자체에 몰두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6:27)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그저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흘리시며,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5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입니다.

2.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56~59)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유일무이한 참된 양식이자 음료인 까닭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56절). 모든 가로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열려지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일에는 오천 명의 무리 앞에서 떼어진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김당하셔야 했고, 찢김당한 몸 사이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야만 했습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역설의 신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활짝 열린 생명의 길 안으로 초대된 이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생명을 살리고 부요케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회당’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5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보시다.

1. 참된 양식과 음료를 베푸신 은혜를 선한 일에 흘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2.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전해지는 회당에서부터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 생명이 살고 부요해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1~5 ¹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²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³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⁵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흠족히 채워 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Jesus said to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love me, for I came from God and now am here. I have not come on my own; but he sent me.

-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으로다

Why is my language not clear to you? Because you are unable to hear what I say.

-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Yet because I tell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me!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Can any of you prove me guilty of sin? If I am telling the truth,
why don't you believe me?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
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으로다

He who belongs to God hears what God says. The reason you
do not hear is that you do not belong to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42~44)

예수님은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본 단락이 위치한 8장 앞부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분의 증언이 모두 참되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8:12~14). 한편으론 참 곧 진리에 대응하는 거짓 세력의 존재를 암시하신 셈인데,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서 유대인을 언급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42절)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들은 실상 속이는 자요, 살인자요, 애초에 진리가 서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로 산다고 질책하십니다(44절). 거짓의 아들은 진리를 보고도 애써 외면하고 진리를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삶을 거듭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자는 모든 말이 진리에 서고, 진리를 변호하며, 진리를 증언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거짓으로 난무한 세상에 맞서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께로 이르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2.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45~47)

예수님은 거짓의 힘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첫 번째로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무너트리고 서로를 죽이는 거짓을 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은 진리를 덮으려 하며, 불신과 미움을 증폭시켜 분열을 일삼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곁에서 불신과 불순종을 거두지 않은 바리새인의 실체이기도 합니다(45절).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하며, 말씀이 안내하는 삶을 경험해 갑니다(47절). 그런 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는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는 싹트고, 생명이 돌아나고, 사랑이 허물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물밀듯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증언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속고 속이며 진리와 사랑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을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꺾으시고 온 인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머리 삼아 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진실한가요?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3:3~4 ³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 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⁴ 하나님, 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6

요한복음 10:7~18

목요일

오늘의 찬송 151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말씀 속으로

-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Therefore Jesus said again, "I tell you the truth, I am the gate for the sheep.

-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All who ever came before me we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listen to them,

-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He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
니와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12 삥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
느니라

The hired hand is not the shepherd who owns the sheep. So
when he sees the wolf coming, he abandons the sheep and
runs away. Then the wolf attacks the flock and scatters it.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삥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The man runs away because he is a hired hand and cares
nothing for the sheep.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 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sheep pen, I must bring them also. They too will listen to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lock and one shepherd.

-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 - only to take it up again.

-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No one takes it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 own accord.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This command I received from my Fath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나는 양의 문이라”(7~10)

9장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7절). 마치 보지 못한 인생을 보게 하시는 데에는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따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양이 제 주인을 따라나서지 않으면 이리에게 금세 잡히고 맹수에게 먹히듯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10절). 이것이 주인의 탈은 썼지만 실상은 절도요 강도인 자들이 벌이는 소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구원을 받으며, 생명이 날로 부요해지는 축복을 얻습니다(9절). 이때에 주님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듣고 따르는 일을 경계시키시며, 영원하고도 무궁한 축복을 받는 일에 삼가 스스로를 지킬 것을 부탁하십니다(8절).

2. “나는 선한 목자라”(11~18)

예수님 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절도자나, 거짓 진리를 듣고 따르는 양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사이에 숨겨진 다른 무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삿꾼’이라 말하며, 마을의 공동 목장에서 양들을 돌보던 고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받고 고용된 자들인 만큼 이리나 도적의 침입으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를 때면 양을 두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급한 상황에 양을 두고 떠난 삿꾼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한편,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듯도 합니다(13절).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절도자나,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따라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양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스스로 문이 되시어 양들을 보호해 주시자, 감히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모두를 살게 합니다(16~18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주인의 탈을 썼지만 실상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이 난무하는 현실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예수님께 선히는 생명을 살리고 부요케 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생명을 억압하는 일에 함께한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3:1~6 ¹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²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³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⁵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⁶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요한복음 11:17~27

오늘의 찬송 3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말씀 속으로

-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On his arrival,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four days,

-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Bethany was less than two miles from Jerusalem,

-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
-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Martha answer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Yes, Lord," she told him,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was to come into the worl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께서 오시니”(17~20)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한 사람 곧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며 시작됩니다(17절). 주님이 그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발걸음을 지체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11:6~13).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알릴 때만 해도 나사로의 생명이 완전히 끊이지는 않았습니니다(11:3). 그러니 주님이 곧장 그 길로 가셨다면 부패된 시체로 인한 슬픔은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시간의 경과를 알려 주는 듯 그 사이 위문하러 찾아온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밝힙니다(19절).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르다가 한결음에 내달리며 모실 준비를 합니다(20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죽음도 다스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2.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21~27)

지체된 주님의 발걸음을 보며 마르다의 원망 섞인 고백이 들려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21절) 그런데 이내 놀라운 고백이 이어 집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22절) 아마도 그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 ‘죽음’은 미해결된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24절). 마지막 날 부활에 이르러서야 죽은 동생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기대하고 소망했던 부활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25~26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 죽음을 뛰어넘으며 영생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때에 “주여 그러하외다” 겸손히 고백한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살아나고, 부활의 빛이 베다니 마을에 떠오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지체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의 세력을 실감하게 하면서도 이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 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2.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실오라기 같은 생각 하나도 내어 드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속에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4:30~34 ³⁰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³¹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³²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³³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³⁴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5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 “Though I have been speaking figuratively, a time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use this kind of language but will tell you plainly about my Father.

- 26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 In that day you will ask in my name. I am not saying that I will ask the Father on your behalf.

-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 No,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 28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 I came from the Father and entered the world; now I a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back to the Father.”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Then Jesus' disciples said, "Now you are speaking clearly and without figures of speech,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Now we can see that you know all things and that you do not even need to have anyone ask you questions. This makes us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You believe at last!" Jesus answered,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But a time is coming, and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home. You will leave me all alone. Yet I am not alone, for my Father is with me,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때가 이르면”(25~30)

1~2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쫓아지실 십자가의 사역이 다가올수록 그들도 나름은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 어렵פות하게 주님을 아는 일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아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우리러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은혜요,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몸소 보이십니다(17장).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당신에게 지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2.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31~33)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30절) 그런데 곧바로 제자들 서로가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며 주님을 배신하는 미래가 예고됩니다(32절). 다시 말해 아버지를 밝히 아는 날이 아직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도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주님의 아픔을 표현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쫓아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고통당하시며 아들의 죽음에 동참하신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랑으로 덮이며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담대히 열린 생명의 길이 제자들과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는 자녀는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영생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본문은 때가 이르는 날까지 자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나와 가정, 우리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대어 부활절을 맞이합시다.
2. 나와 가정을 둘러싼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상을 살아갑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0:3~4,11~12 ³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¹¹ 주님께 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¹²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사랑과 순종으로 꽃피는 열매

글 박기창·정숙연 (엘살바도르 선교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교지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엘살바도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 면적은 경상남북도 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21,041km²이며, 중미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연중 건기철(11월~4월)과 우기철(5월~10월)로 나누이며, 낮 기온이 일 년 평균 30~32도입니다. 이곳에서 23년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박기창 정숙연 문안 인사드립니다.

2022년 6월 달에 중미권역 선교사 총회에서 중미 권역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 2년마다 권역 대회를 하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선교사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13일(월)~17일(금)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총회과송 중미권역 선교사 16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선교 대회를 위해 소망교회 당회장이신 김경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께 푸짐한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별 강의를 통해 지치고 힘들었던 선교사들에게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셋째 주간 토요일에는 정부가 갑자기 비상사태를 한시적으로 선포하여 엘살바도르에 퍼진 갱 조직을 소탕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한 달 연장하는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갱 조직원들의 검거가 83%에 달하며, 6만 5천 명 정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현재 많은 갱 조직원이 잡혀서인지 가게나 공장, 노점상에게 돈을 뜯는 일이 멈추어졌고, 저녁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이 91%로 나타났으며, 지지 이유로는 치안 안정이 70%로 뽑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경제 불안이 67%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엘살바도르 개신교에 처음으로 선교지 교회에서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선교지 산타아나 교회건축 헌당예배가 있었으며, 12월 7~9일까지 2박 3일간 청소년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선교지 교회 성도 4명에게 세례식도 거행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식을 보낸 심정으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동역해 주시는 소망교회와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의 열매가 선교를 돕고 후원하시는 분들의 것임이요, 하나님께 함께 올려 드릴 결과물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소망교회와 세계선교부와 온 성도님들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박기창·정숙연 선교사의 영육간에 강건함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2. 선교지 아우아차판 교회와 아뿐빠 교회에 금년 안에 교육관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3. 현지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시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4.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차세대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4/9~15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시 32:11)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말씀 속으로

-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Then the man brought me to the gate facing east,

-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and I saw the glory of the God of Israel coming from the east. His voice was like the roar of rushing waters, and the land was radiant with his glory.

- 3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The vision I saw was like the vision I had seen when he came to destroy the city and like the visions I had seen by the Kebar River, and I fell facedown,

- 4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The glory of the LORD entered the temple through the gate facing east.

5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Then the Spirit lifted me up and brought me into the inner court,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6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While the man was standing beside me, I heard someone speaking to me from inside the temple.

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라

He said: "Son of man,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 and the place for the soles of my feet. This is where I will live among the Israelites forever. The house of Israel will never again defile my holy name - neither they nor their kings - by their prostitution and the lifeless idols of their kings at their high places.

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
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
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
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When they placed their threshold next to my threshold and their doorposts beside my doorposts, with only a wall between me and them, they defiled my holy name by their detestable practices. So I destroyed them in my anger.

- 9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Now let them put away from me their prostitution and the lifeless idols of their kings, and I will live among them forever.

- 10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Son of man, describe the temple to the people of Israel, that they may be ashamed of their sins. Let them consider the plan,

- 11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and if they are ashamed of all they have done, make known to them the design of the temple - its arrangement, its exits and entrances - its whole design and all its regulations and laws. Write these down before them so that they may be faithful to its design and follow all its regulations.

- 12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This is the law of the temple: 'All the surrounding area on top of the mountain will be most holy. Such is the law of the templ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에스겔과, 에스겔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1~5).

성전의 사방으로 난 담 측량이 마무리되자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이끌고 동문으로 갑니다(1절). 그곳에 도착하니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가 함께 일어나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2절) 여호와의 영광에 이번에도 압도당하게 된 에스겔이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을 직접 보도록 합니다(4~5절).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며 동문을 통하여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문으로 들어오셔서 백성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위엄 있는 모습처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곁에, 첫 번째 환상이 일어난 그날 강가를 떠올리는 에스겔에게서 하나님과 함께해 온 신실한 믿음이 엿보입니다.

2. 하나님이 약속합니다(6~12).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성전을 보며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눈으로 담는 사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귓가에 도사옵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7절) 이와 함께 이어지는 8절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세대에 걸쳐 일어난 이스라엘 죄악을 또렷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떠나신 성전을 스스로 찾으시며 이후로는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이 분노의 형벌을 자비의 구원으로 변화시킵니다. 물론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옛적의 삶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실 말씀을 듣고, 이전의 악행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에스겔이 받은 특별한 축복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일이 옳고 선합니다. 여호와의 주권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6:1~4,8~9 ¹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²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³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⁸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⁹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1

마가복음 9:38~50

화요일

오늘의 찬송 21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말씀 속으로

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Teacher,” said John, “we saw a man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old him to stop,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Do not stop him,” Jesus said. “No one who does a miracle in my name can in the next moment say anything bad about me,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for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And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a large millstone tied around his neck,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If your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than with two hands to go into hell, where the fire never goes out,

44 (없음)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And if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than to have two feet and be thrown into hell,

9:43,45 범죄하게 하
거든
또는 실족하게 하거든

46 (없음)

9:44
어떤 사본에, 44, 46 양
절에, 48절과 같은 문구
가 있음

9:43,45 영생에
헬라어) '생에'

11 — 화

-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pluck it out.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 one eye than to have two eyes and be thrown into hell,

- 48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you make it salty again? Have salt in yourselves, and be at peace with each oth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38~42).

제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자 논쟁이 한창입니다(9:33~34). 그러자 주님이 가장 작은 자인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37절) 하나님의 길은 힘의 크고 작은 것에 달려 있지 않고, 다른 이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르침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을 나누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38절) 그러자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시며,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40절)

2. 믿음의 형제자매를 실족케 하는 일이 죄입니다(43~5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은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만이 구원의 공동체에 초대받은 전부가 아니요, 먼저 부르받은 은혜를 따라 걸어가며 다른 이의 생명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겸손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위하여 죽고, 서로를 위하여 살며 믿음 안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 일을 상기시키고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43~47절) 자칫하다가는 서로끼리 하나되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시는 일에 분열을 일삼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5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라는 기준 안에 누가 서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2.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의 빛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2:2~5,8~9 ²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³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⁴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⁵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 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⁹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Jesus then left that plac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and across the Jordan. Again crowds of people came to him, and as was his custom, he taught them.

- 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Some Pharisees came and tested him by asking,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What did Moses command you?" he replied.

- 4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 다

They said, "Moses permitted a man to writ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
- 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It wa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that Moses wrote you this law,” Jesus replied.

- 6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But at the beginning of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 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 8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10:4 신 24:1,3

10:4 이혼 증서

모세시대에 이혼 증서는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수치스런 일이 발견된 경우에 허용되었다. 분명한 사유 없는 이혼을 방지한 목적이자, 이혼한 여성의 재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이 유였다.

12

— 수

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When they were in the house again, the disciples asked Jesus about this,

11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He answere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against her.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And if she divorces her husband and marries another man, she commits adulter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1~4).

세상의 길은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며 생명을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9:38~50). 하나님이 부르시고 살리시어 하나되게 하시는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조롱하거나 분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단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관계에 주목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2절) 여기에 이혼을 허용한 모세의 이름마저 거론하며 답을 얻으려는 열정을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 나아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4절)

2. 믿음의 사람이 힘써 지킬 것은(5~12)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을뿐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으로 수치스런 일이 발견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이혼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혼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모세가 살던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버림받은 여성 중에 생계 문제를 위하여 매음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혼 증서 발급을 허용하시며 이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항의하듯 질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은 잘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깨닫지 못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여실히 드러난 이때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은 서로 간에 화평하고 연합하기를 당부하십니다(6~12절). 이것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인생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바리새인은 이혼 증서를 허용한 율법의 틀은 보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안의 누룩을 제하여 주셔서 진리를 맛보고 증언하는 소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고 무너지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손, 발, 귀는 연합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4~7, 12 ⁴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⁵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⁶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⁷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¹²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3

목요일

마가복음 10:13~16

오늘의 찬송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으로

-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People were bringing little children to Jesus to have him touch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em,

-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When Jesus saw this, he was indignant. He said to them,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 16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put his hands on them and blessed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13~14).

크고 작은 자를 쟁론하는 제자들과 맛 잃은 소금의 인생을 보이는 바리새인의 이야기 앞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번째로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말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하여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수 있음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주님께 나아오려는 어린아이를 막아서며 꾸짖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13절). 그들 스스로도 차마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회 문화를 답습하며 생명을 억압한 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노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14절) 인간의 이해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로 하여금 사고의 틀을 깨트리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2.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15~16).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편에 어드새 어린아이들이 품에 안겨 있고, 축복까지 받습니다(16절). 그 광경에서 지난날 길가에서, 바다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은혜의 주님을 떠올리며 제자들도 마음을 가다듬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금 울리며 그들을 깨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15절)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학식과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혹은 율법을 잘 지켜 따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목자를 찾는 양처럼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조상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시 23:1-2)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예수님은 믿는 자와 날마다 함께하시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세밀한 손길에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사모합니다.
2. 아이가 부모를 찾고 양이 목자를 찾듯이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3:1~2 ¹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²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As Jesus started on his way, a man ran up to him and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Good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
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 except God alone.

-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
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
경하라 하였느니라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do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
나이다

"Teacher," he declared,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
-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One thing you lack," he said,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At this the man's face fell.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 23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Jesus looked around and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is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his words. But Jesus said again, "Children,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10:19 출 20:12-16; 신 5:16-20

10:24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 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The disciples were even more amazed, and said to each other, "Who then can be saved?"

-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 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Peter said to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I tell you the truth," Jesus replied, "no one who has left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e and the gospel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will fail to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in this present age (homes, brothers, sisters, mothers, children and fields - and with them, persecutions)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10:29 아버지나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나' 아래에 '아내나' 가있음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마음 없는 행위는 외식에 불과합니다(17~22).

마가는 부자, 마태는 청년, 누가는 관리라 칭한 한 사람이 길을 나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17절) 재물과 지위를 갖춘 그가 진리마저 사모하니 눈길을 끌 만도 합니다. 그러나 고백에서 느껴지듯이 부자 청년의 갈급함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가 지켜 온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읊어주시며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지만, 의도를 알 일 없는 청년은 도리어 당당하기만 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20절) 그러자 자신감 넘치는 그에게 주님의 날카로운 음성도 들어서며 마지막 남은 하나, 실상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요청됩니다.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21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행위는 외식에 불과하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여기서 청년은 넘어지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택하는 인생으로 돌아가고 맙니다(22절).

2. 재물인지, 하나님인지!(23~31)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청년의 마음을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따르는 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1~4계명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성문이 닫히고 바늘귀 같은 작은 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밤 시간에 저 멀리 낙타에 한가득 짐을 싣고 오는 상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25절).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던 시대적 풍경에 빗대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비유로 전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일어난 이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23절) 그 곁에서 놀라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재물이냐 하나님이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나를 선택하는 기로 앞에 우리는 늘 놓입니다(26절).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바늘귀 같은 작은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드리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예비됩니다(27~3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하나님은 적으나 많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까. 나는 재물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2. 예수님이 여신 구원의 문을 깨끗한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9:12~15 ¹² 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¹³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¹⁴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¹⁵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3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These are the measurements of the altar in long cubits, that cubit being a cubit and a handbreadth : Its gutter is a cubit deep and a cubit wide, with a rim of one span around the edge. And this is the height of the altar:

- 14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From the gutter on the ground up to the lower ledge it is two cubits high and a cubit wide, and from the smaller ledge up to the larger ledge it is four cubits high and a cubit wide,

- 15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The altar hearth is four cubits high, and four horns project upward from the hearth.

16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반듯하고

The altar hearth is square, twelve cubits long and twelve cubits wide.

17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The upper ledge also is square, fourteen cubits long and fourteen cubits wide, with a rim of half a cubit and a gutter of a cubit all around. The steps of the altar face east."

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hese will be the regulations for sacrificing burnt offerings and sprinkling blood upon the altar when it is built:

19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You are to give a young bull as a sin offering to the priests, who are Levites, of the family of Zadok, who come near to minister before m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 20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You are to take some of its blood and put it on the four horns of the altar and on the four corners of the upper ledge and all around the rim, and so purify the altar and make atonement for it.

- 21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

You are to take the bull for the sin offering and burn it in the designated part of the temple area outside the sanctuary.

- 22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On the second day you are to offer a male goat without defect for a sin offering, and the altar is to be purified as it was purified with the bull.

- 23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When you have finished purifying it, you are to offer a young bull and a ram from the flock, both without defect.

24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You are to offer them before the LORD, and the priests are to sprinkle salt on them and sacrifice them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25 칠 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추어 드릴 것이며

For seven days you are to provide a male goat daily for a sin offering; you are also to provide a young bull and a ram from the flock, both without defect.

26 이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
며 드릴 것이요

For seven days they are to make atonement for the altar and cleanse it; thus they will dedicate it.

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
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At the end of these days, from the eighth day on, the priests are to present your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on the altar. Then I will accept you,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새 성전의 중심에 제단이 설치됩니다(13~17).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성전이 묘사된 후, 번제단 측량에 관한 내용이 기술됩니다. 성전 안의 내부 시설 중 번제단 만큼이나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제단이 지닌 중요성이 시사됩니다. 그 예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고안하신 성전의 설계도와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 주신 새 성전의 설계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제단이 성막 문 앞에 위치하는 형태였지만, 새 성전에서는 제단이 성전 중심에 자리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복될 관계를 암시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열방의 심판 아래 놓이기도 합니다. 측량의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제단은 세 층으로 구성되는데, 아래층은 두 척의 높이에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은 각각 네 척의 형태를 띠니다. 이렇게 총 열 척의 높이를 가진 제단은 위로 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가 하면, 번제를 드리는 가장 윗층인 세 번째 층에는 네 모퉁이마다 뿔이 달려 있어서 목재와 희생제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2. 칠 일의 정결 의식 끝에 예배가 드려집니다(18~27).

제단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사를 드릴 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공된 제단부터 바치도록 명하시며 칠 일 간의 정결 의식 끝에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 단락은 ‘구례’라는 단어로 문이 열리며 제단을 봉헌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날에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고, 그 피를 제단의 네 뿔을 포함하여 아래층의 네 모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바르며 의식이 진행됩니다(20절). 이때에 제물로 바쳐진 어린 수송아지를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도 중요한 규례였습니다(21절). 다음으로는 흠 없는 숫염소, 흠 없는 수송아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가 비슷한 규정을 따라 제물로 바쳐집니다(23~24절). 칠 일에 걸쳐 정결 의식이 마무리되고 팔 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명하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통하여 번제와 감사제가 올려집니다(27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의 문이 활짝 열린 이스라엘 땅 앞에, 제단을 정결케 한 칠 일의 정성스런 시간이 눈길을 끄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의 중심에 놓인 제단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암시합니다.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2.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12~14,16~17 ¹²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¹³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⁴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¹⁶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¹⁷ 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봄꽃 단상

글 김완진 (장로)

봄은 꽃의 계절이다. 4월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화사하게 피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지만, 5월이 되면 벌써 꽃들은 시들고 그 대신 녹색의 잎들이 온 산을 덮기 시작한다. 싱그러운 녹색이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하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각양각색의 현란한 꽃이 동산을 뒤덮는 4월이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봄날은 빨리도 지나간다. 봄꽃은 유난히도 빨리 진다. 그리고 화사하게 피어 있는 꽃은 아름답지만 시들어 가는 모습은 초라하고 슬프기까지 하다. 사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유한하다. 짧은 봄날이 아쉽기만 한 것은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역설적으로 그 수명이 짧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철쭉이 일 년 내내 피어 있다면 지금같이 아름답게 느껴질까? 벚꽃이 늘 화사하게 피어 있다면 그 화려함은 반감될 것이다. 모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그것이 다 유한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지극히 희소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가 발부리에 채는 돌만큼 흔하다면 희소가치는 없어질 것이고 영롱한 빛깔의 찬란함도 그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 마지막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슬퍼한다.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한다. 그러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이야말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인생이 유한하므로 인격의 도야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므로 우리의 노력이 더 빛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곧바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다. 깊은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소망의 환희와 기쁨을 알 수가 없다.

모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그것이 다 유한하기 때문이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세상의 유한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유한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다는 유명한 고백도 유한성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 향기와 색깔과 자태의 외형만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꽃이 유한하고 그 향기와 자태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는 꽃을 그리워하고 짧은 봄날을 아쉬워하지만, 바로 그렇게 유한하므로 꽃은 더욱 아름답고 봄날은 더욱 찬란함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며 덧없음을 괴로워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유한하고 고통 많은 세상을 한탄하며 절망하지 않는다. 유한함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늘 함께할 터이니 우리는 세상의 유한성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16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4/16~22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시 84:11)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말씀 속으로

-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Then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outer gate of the sanctuary, the one facing east, and it was shut.

-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돌지니라

The LORD said to me, "This gate is to remain shut. It must not be opened; no one may enter through it. It is to remain shut becau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s entered through it.

- 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
라

The prince himself is the only one who may sit inside the gateway to ea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He is to enter by way of the portico of the gateway and go out the same way."

-
- 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
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Then the man brought me by way of the north gate to the front
of the temple, I looked and saw the glory of the LORD filling
the temple of the LORD, and I fell facedown,

- 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
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
목하고

The LORD said to me, "Son of man, look carefully, listen closely
and give attention to everything I tell you concerning all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temple of the LORD. Give attention
to the entrance of the temple and all the exits of the sanctuary.

- 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
증한 일이 족하니라

Say to the rebellious house of Israel,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Enough of your detestable practices, O house of
Israel!

- 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In addition to all your other detestable practices, you brought
foreigners uncircumcised in heart and flesh into my sanctuary,
desecrating my temple while you offered me food, fat and
blood, and you broke my covenant,

- 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Instead of carrying out your duty in regard to my holy things, you put others in charge of my sanctuary.

- 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No foreigner uncircumcised in heart and flesh is to enter my sanctuary, not even the foreigners who live among the Israelites.”

- 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The Levites who went far from me when Israel went astray and who wandered from me after their idols must bear the consequences of their sin,

- 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They may serve in my sanctuary, having charge of the gates of the temple and serving in it; they may slaughter th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for the people and stand before the people and serve them.

-
- 12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ut because they served them in the presence of their idols and made the house of Israel fall into sin, therefore I have sworn with uplifted hand that they must bear the consequences of their sin, declares the Sovereign LORD.

- 13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They are not to come near to serve me as priests or come near any of my holy things or my most holy offerings; they must bear the shame of their detestable practices.

-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Yet I will put them in charge of the duties of the temple and all the work that is to be done in i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1~9).

43장이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비추며 시작되었습니다(43:1). 이처럼 성경에서 동쪽 방향은 의미를 가지는데,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간 방향이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의 아픈 역사가 새겨진 이곳 방향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합니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2절) 더 이상은 지나간 과거의 죄를 묻지 않기로 결단하시며 동문 안에 들어선 사람들을 영원히 잃지 않으시겠다는 각오를 새겨 주십니다. 여기에는 선행하는 은혜를 따라 예배하지 못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맡겨 주신 직분에 소홀히 했던 제사장의 죄를 들추어내시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입니다(10~14).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맡기신 제사장 직분은 그야말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 덕분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제사들이 드러집니다. 때로는 금시기 된 제물이 바쳐지는가 하면,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오는 일도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지키고 수종들며 예배의 문을 여는 일에 힘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신접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10절). 결국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죄 때문에 백성 앞에 세워진 제사장이 도리어 낮아지며 그들을 섬기도록 명함받습니다(11절). 그러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율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2. 예배하는 삶이 끊기자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백성의 현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곧 은혜요 복임을 깨닫고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9~11 ⁹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¹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¹¹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y were on their way up to Jerusalem, with Jesus leading the way,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while those who followed were afraid. Again he took the Twelve aside and told them w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he said, "and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 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who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flog him and kill him. Three days later he will rise."

-
-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
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
기를 원하옵나이다

The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him,
“Teacher,” they said,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
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They replied,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
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10:38 세례
헬라어) 또는 '침례'

-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We can,”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You will drink the cup I drink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When the ten heard about this, they became indignant with James and John,

-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
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 차례 예고됩니다(32~34).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 걷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시며 제자들로 듣게 하십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33절) 농부들에게 능욕과 죽임을 당한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임을 알리시는 듯한 대목입니다(12:6~8).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며 로마 세력이 압제당할 미래를 꿈꾸었을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을 법도 합니다. 자신들 앞에 계신 주님이야말로 이 일을 이루실 왕이라 믿은 까닭입니다. 어찌면 너무도 강렬한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세 차례나 예고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삼 일’만에 살아나실 것을 함께 약속하시며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힙니다(34절). 이 비밀은 주님의 영광스런 뒷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제자들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32절).

2.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35~45).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예고가 있는 후 제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9:30~37). 비슷한 흐름이 이곳에도 이어지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간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37절)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며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며 힘과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세상의 집권자와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길을 강조하시며 이 길에선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밀알이 으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42~44절).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까닭에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모두를 살게 하십니다(45절). 그리고 그 길로 야고보와 요한, 곁에서 분노한 열 제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3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 못하고 돌아선 반면에 제자들은 같은 길은 걸었지만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까?
2. 주님은 어리석은 말을 되풀이하는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7~13 ⁷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⁸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⁹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¹⁰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¹¹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¹²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¹³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Then they came to Jericho. As Jesus and his disciples, together with a large crowd, were leaving the city, a blind man, Bartimaeus (that is, the Son of 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Man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o the blind man,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sked him. The blind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Go," said Jesus,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힘껏 부릅니다(46~48).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에 예리고에 이릅니다(46절). 이곳 예리고는 여러 샘을 통하여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지역인데, 놀랍게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가 주목되며 보아도 알지 못한 제자들의 영적 실체가 암시됩니다. 바디매오라는 맹인이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47절)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는 표현인 ‘다윗의 자손’을 사용하면서 몸에 지닌 짐고를 고쳐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의 호소에서 볼 수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와는 달리, 보지는 못하였으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구원의 왕을 기다린 믿음이 드러납니다(사 35:5). 대조되는 믿음을 강조하는 듯 마가는 바디매오를 향하여 조용히 하도록 다그치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자신들의 실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믿음은 하찮게 여기는 폭력이 이루어지지만 맹인의 의지는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48절)

2. 바디매오가 혼돈의 삶에서 구원받습니다(49~52).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 바디매오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49절) 사람들이 전해 준 소식에 순식간에 일어난 맹인이 주님께로 달음박질합니다. 바디매오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51절)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맹인이 원하는 바를 알고 계셨지만 그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간청의 제목을 고백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결과 바디매오가 믿음대로 구원을 얻으며 보지 못하는 자에서 보는 자로, 받아도 나눌 수 없던 거지에서 나누는 제자로 거듭납니다(52절). 성경은 변화된 그의 삶을 두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증언하는 한편, 길가에 놓인 바디매오의 겉옷은 맹인으로서 산 세월이 청산되고 새롭게 시작된 삶을 비춥니다(50절). 그야말로 ‘바디매오’ 즉 ‘혼돈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은 삶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주님은 바디매오에게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까?
2. 받아도 나눌 수 없던 거지 바디매오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나눌 수 있는 자로 거듭납니다.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나는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제자로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9:29~32,34~35 ²⁹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³⁰ 그 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³¹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³²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³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³⁵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just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doing this?" tell him,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They went and found a colt outside in the street, tied at a doorway. As they untied it,

-
- 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some people standing there asked,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at colt?"

-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They answered as Jesus had told them to, and the people let them go.

-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When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ver it, he sat on it.

- 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1:3 주가 쓰시겠다 하라

또는 주가 즉시 돌려보 내리라 하라 하시니

-
-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아에 나가시니라

Jesus entered Jerusalem and went to the temple. He looked around at everything, but since it was already late, he went out to Bethany with the Twelv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주가 쓰시겠다 하라”(1~6)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중에 예리고에서 맹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10:46~52). 이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보다 가까워졌는데, 베다니에 이를 즈음에 주님이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2절) 말씀을 따라 두 사람이 맞은편 마을로 가 보니 정말이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습니다(4절). 줄을 풀어 나귀를 가져가려는 이들에게 둘러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5절) 그때에 주님이 이르신 대로 제자들이 행동하자 어느새 나귀 새끼가 곁에서 함께합니다(6절). 두 제자가 사람들을 향하여 전한 말은 이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3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처음으로 사용한 호칭 ‘주’가 먼저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사람들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십니다(7~11).

나귀 새끼가 그를 쓰겠다고 부른 예수님 앞으로 점차 다가갑니다(7절). 이날에 제자들은 겹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어 놓으며 경의를 표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벤 나뭇가지를 길가에 펴면서 나뭇대로 성대한 환영식을 펼칩니다(8절). 한편에서 마가는 그들 안에 있던 마음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9~10절) 옳다구나, 로마의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인으로 해방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온 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득 메웁니다. 그런데 어쩐지 말도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기로 결단하시고 오르신 주님의 모습에서 싸울 의도가 있으신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답하시는 듯 예루살렘에 오르신 주님이 성전을 찾으십니다(11절). 성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나오시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실 만유의 ‘주’ 그분을 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비된 나귀 새끼는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하고 의롭게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2.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사이로 나귀 새끼를 타시며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던 마음 앞에 잠잠히 머무릅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8:19~23, 28~29 ¹⁹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²⁰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²¹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²²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²³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²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²⁹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마가복음 11:12~19

오늘의 찬송 421 내가 예수 믿고서

 말씀 속으로

-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 지라

The next day as they were leaving Bethany, Jesus was hungry.

- 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Seeing in the distance a fig tree in leaf, he went to find out if it had any fruit. When he reached it, he found nothing but leaves, because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Then he said to the tree, "May no one ever eat fruit from you again." And his disciples heard him say it.

-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On reaching Jerusalem,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began driving out those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and would not allow anyone to carry merchandise through the temple courts,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And as he taught them, he said, "Is it not written: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heard this and began looking for a way to kill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the whole crowd was amazed at his teaching.

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When evening came, they went out of the city.

11:17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사 56:7

11:17 강도의 소굴
렘 7:11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12~14).

1~11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며 분위기가 다소간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본 단락은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의미심장한 구절로 열리며, 가만히 있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사건이 소개됩니다(12~13절). 급격히 변화되는 분위기 안에서 마가는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가 하면, 십자가의 사역이 가까워질수록 단호해 지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함께 기록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열매는 없고 형식만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느끼신 허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난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14절) 드디어 무화과의 때 곧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덮인 시대가 예수님의 판결에 따라 끝이 나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 갑니다.

2. 강도의 소굴로 전락된 성전입니다(15~19).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난 무화과나무에 이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는 돈벌이하는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하실 일이었습니다. 결국 극에 달한 허기지심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고, 제물로 바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분노로 이어집니다(15절). 이들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성전세로 교환해 주거나 흠이 없는 제물을 판매하여 예배를 섬기는 자처럼 행동하였지만 실상은 비싼 값을 받고 물건을 팔아 이득을 꾀하는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죽은 무덤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는 자신들의 누룩을 제하고 진리를 비추시려는 주님을 죽이기로 도모합니다(18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무화과나무 사건부터 등장하는 표현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이르지 못할 구원을 암시합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기쁨 가득한 인생되기를 간구합니다.
2. 모든 것이 인간의 편의를 따라 대체된 성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6~10 ⁶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⁷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⁹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¹⁰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But the priests, who are Levites and descendants of Zadok and who faithfully carried out the duties of my sanctuary when the Israelites went astray from me, are to come near to minister before me; they are to stand before me to offer sacrifices of fat and blood, declares the Sovereign LORD.

-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They alone are to enter my sanctuary; they alone are to come near my table to minister before me and perform my service.

- 17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When they enter the gates of the inner court, they are to wear linen clothes; they must not wear any woolen garment while ministering at the gates of the inner court or inside the temple.

-
- 18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They are to wear linen turbans on their heads and linen undergarments around their waists. They must not wear anything that makes them perspire.

- 19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When they go out into the outer court where the people are, they are to take off the clothes they have been ministering in and are to leave them in the sacred rooms, and put on other clothes, so that they do not consecrate the people by means of their garments.

- 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They must not shave their heads or let their hair grow long, but they are to keep the hair of their heads trimmed.

- 21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No priest is to drink wine when he enters the inner court.

- 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They must not marry widows or divorced women; they may marry only virgins of Israelite descent or widows of priests.

- 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They are to teach my peop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and show them how to distinguish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 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In any dispute, the priests are to serve as judges and decide it according to my ordinances. They are to keep my laws and my decrees for all my appointed feasts, and they are to keep my Sabbaths holy.

- 25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으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A priest must not defile himself by going near a dead person; however, if the dead person was his father or mother, son or daughter, brother or unmarried sister, then he may defile himself.

- 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요

After he is cleansed, he must wait seven days.

- 27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 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On the day he goes into the inner court of the sanctuary to minister in the sanctuary, he is to offer a sin offering for himself, declares the Sovereign LORD.

-
- 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I am to be the only inheritance the priests have. You are to give them no possession in Israel; I will be their possession.

- 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They will eat the grain offerings, the sin offerings and the guilt offerings; and everything in Israel devoted to the LORD will belong to them.

- 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The best of all the firstfruits and of all your special gifts will belong to the priests. You are to give them the first portion of your ground meal so that a blessing may rest on your household.

- 31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The priests must not eat anything, bird or animal, found dead or torn by wild animal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합니다(15~22).

레위인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중단되었으니 큰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독 가문 출신의 제사장을 언급하시며 그들로 제사드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15절) 제사장들마저 죄악의 길로 들어선 시대에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맡겨 주신 직분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사독’은 다윗과 후손에게 충실했던 인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중에 다윗 편에 섰고,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솔로몬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곳곳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길 원하셨는데, 여기에는 은혜에 겸손히 응답하는 자세가 함께 따릅니다. 이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새 성전에서 따라야 할 율례와 규례가 주어지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직분이 당부됩니다.

2.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십니다(23~31).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 주어진 율례와 규례는 삶과 사역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되어진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가 하면(23절), 백성 간에 일어나는 재판을 치우침 없이 판결하도록 명하십니다(24절). 한편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혹여나 죽은 가족의 시체를 만진 일이 있다면 칠일 간의 정결 의식을 반드시 거친 후에 예배드리도록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멈추지 않는 일을 가장 원하신 까닭입니다. 이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 없이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영위하는 일에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29~30절). 약속을 시작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 아래 머무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건네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역사마다 사람을 세우시며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손길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2.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과 감사로 임하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9:1~7 ¹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 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²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यो,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³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고 하였다.” (셀라) ⁵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⁶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⁷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현대 히브리어의 부활

글 홍성민 (부목사)

이스라엘에서는 도심 곳곳에 현대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올판^{Ulpan}이라는 학원이 있다. 처음 이스라엘에 도착해 히브리대학에서 학기를 시작하기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올판 학원에 등록한 일이 기억난다. 어디나 그렇듯이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거치고 적절한 반에 배정된다.

올판에서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들 대부분은 아랍 젊은이들이다. 일차적으로는 학원비가 싸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좀 더 임금이 높은 유대인들의 가게에서 일하려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판 수업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신기한 일이 있다. 선생님이 그날의 단어나 표현을 소개할 때면, 아랍 친구들은 손을 들면서 자기네 아랍어의 낱말과 비슷하다며 시끄럽게 떠들고 손쉽게 히브리어 표현들을 익히는 것이다. 그럴 때면 동양인은 소외되기 일쑤다. 나도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운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다'며 시끄럽게 떠들어 줄 수 있는데 말이다. 한번은 아랍 친구가 친절을 베풀었다. 솔로몬 성전 터인 예루살렘 성전산에 함께 데리고 가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그곳을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다.

히브리대학 안에 있는 어학 코스는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아랍인들이 없음은 물론이고 대부분은 방학 때면 전 세계(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대인 부모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자녀들이다. 시내 올판이 생활용 언어 교육이 강한 반면에 히브리대학의 어학 코스는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 정신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데 배우는 교재와 함께 읽는 지문들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수업이 현대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Eliezer Ben-Yehuda, 1857-1922}년에 대한 지문을 읽고 토론한 것이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학

당에서 한글을 배운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정신을 가르치면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지문을 소개하는 것과 같다.

고대 히브리어는 남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부터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국제 공용어는 아람어였고, 고대 히브리어는 아람어 문자를 채택해 문서로 보존되었을 뿐이다. 이후 2,500여 년이 지나 벤 예후다라는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부활에 성공하게 된다. 고대의 사어가 현대에 재생한 것은 현대 히브리어가 아마도 유일할 것이다.

19세기 말 그는 시온주의 운동이 한창이던 때, 새로 탄생할 이스라엘의 언어가 반드시 히브리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시온주의 운동의 창시자였던 헤르צל^{Herzel}은 새 이스라엘 국가의 언어로 영어, 독어, 프랑스어를 함께 쓰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죽은 히브리어를 어떻게 다시 재생시킬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반기를 들었다. 자연과학, 생명공학, 기계공학, 경제, 정치, 사회, 군사 등 고대 성경 시대의 어휘와 표현들부터 어떻게 그 수많은 현대 용어들을 히브리어로 새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반대는 정통 유대인들이었다. 이디쉬^{Yiddish} 독어에 슬라브어와 히브리어를 섞어 히브리 문자를 이용해서 쓰는 말을 쓰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히브리어,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사용하고 토라를 읽을 때만 사용이 허락된 신성한 언어를 생활 언어로 쓴다는 것인지, 신성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거의 미친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집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새 히브리어의 사용을 실험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들 이타마르 벤 아버지에게 그의 유년기를 통틀어 다른 언어와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시켰고, 오직 히브리어만을 가르쳤다. 그 힘든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벤 아버지는 2천 년 만에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울고, 듣고, 말하고, 꿈꾼 첫 아이가 된다. 그리고 점차 주변 어린이들에게 퍼져 나갔고, 어린이들의 슬기와 창조력으로 수많은 어휘들이 만들어지고, 어른들은 결국 자기들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1922년 11월 정부는 “유대인의 공용어는 히브리어”라고 공식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벤 예후다는 한 달 뒤 사망한다. 자기 생전에 히브리어가 나랏말이 된 것을 본 것이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 십자가 명패의 언어들을 다시 보게 된다.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요 19:20)

23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4/23~29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시 97:11)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말씀 속으로

- 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
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
하리라

“When you allot the land as an inheritance, you are to present
to the LORD a portion of the land as a sacred district, 25,000
cubits long and 20,000 cubits wide; the entire area will be holy.

- 2 그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
게 하되

Of this, a section 500 cubits square is to be for the sanctuary,
with 50 cubits around it for open land,

- 3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In the sacred district, measure off a section 25,000 cubits long
and 10,000 cubits wide. In it will be the sanctuary, the Most
Holy Place.

-
- 4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It will be the sacred portion of the land for the priests, who minister in the sanctuary and who draw near to minister before the LORD. It will be a place for their houses as well as a holy place for the sanctuary.

- 5 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An area 25,000 cubits long and 10,000 cubits wide will belong to the Levites, who serve in the temple, as their possession for towns to live in.

- 6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 척을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You are to give the city as its property an area 5,000 cubits wide and 25,000 cubits long, adjoining the sacred portion; it will belong to the whole house of Israel.

- 7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The prince will have the land bordering each side of the area formed by the sacred district and the property of the city. It will extend westward from the west side and eastward from the east side, running lengthwise from the western to the eastern border parallel to one of the tribal portions.

45:1 만 척이라

칠십만 역본에는, 이만 척이라

45:5 마을

히브리어) 방'

- 8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
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This land will be his possession in Israel. And my princes will
no longer oppress my people but will allow the house of Israel
to possess the land according to their tribe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 백성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1~4).

새 성전에서 드러질 예배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는 중에 본 단락은 땅의 공평한 분배를 기술합니다. 전체 지파를 향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왕에게 분배될 지역이 소개됩니다. 한편으론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도록 명하신 한 구역 곧 거룩한 땅을 언급하시는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합니다(1절). 즉 언뜻 보기엔 한 구역에 불과한 땅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듯이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땅 양편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주하는 땅이 각각 마련되는데, 먼저는 성소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땅을 지목하며 그들부터 예배하는 자리에 가까이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춥니다(4절).

2. 백성의 삶이 오실 주님을 비춥니다(5~8).

제사장에 이어 다음으로는 레위인과 왕에게 분배되는 땅이 소개됩니다. 길이는 이만 오천 척에 달하고 너비는 만 척에 해당하는 땅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지는가 하면(5절), 성전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에 이르는 곳에는 왕이 머물 땅이 배정됩니다(7절). 흥미롭게도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려질 땅을 언급하시는데(6절), 왕보다 앞서 백성을 살피시는 섭리에 이어 왕이 따라야 할 계명이 9절부터 등장합니다. 새롭게 재건될 나라에서 통치하는 왕은 정의와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법칙을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 왕의 땅이 가까이 자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자 이 땅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배에 관한 규례 속에 땅 분배가 기술된 흐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4~18 ¹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큼니다. ¹⁵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¹⁶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¹⁷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¹⁸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0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In the morning, as they went along, they saw the fig tree withered from the roots,

-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Peter remembered and said to Jesus, “Rabbi, look! The fig tree you cursed has withered!”

-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Jesus answered.

-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I tell you the truth, if anyone says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him.

-
-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And when you stand praying,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forgive him, so that your Father in heaven may forgive you your sins,”

- 26 (없음)

11:26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가 있음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은혜로써 찾아오셨습니다(20~23).

‘열매’를 중심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성전이 연결되었습니다(11:12~19).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남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린 이스라엘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셈입니다. 죽은 자와도 같은 이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으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화과의 때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주님은 함께하는 제자들부터 그가 곧 ‘주’이심을 알게 하시지만(11:3), ‘답비여’ 하고 부르는 베드로의 음성은 여전히 우매한 제자들을 느끼게 만듭니다(21절).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22절) 지금 그들 앞에 은혜로써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구원의 열매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곧 선물이요 복입니다.

2. 성전의 참 열매는 사랑과 용서입니다(24~26).

한편으로 본 단락에서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앞서 제자들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11:14), 이제는 말씀이 현실이 된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20절).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믿음이 곧 바라는 것의 실상임을 알리며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보고 나서야 믿는 게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축복이 예비되는데, 놀랍게도 용서하는 삶이 구원의 열매로 언급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25절) 예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녀라면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축복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본문은 예수 없는 삶의 무익함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예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피어나는 열매로서 용서를 말씀합니다. 나의 삶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구원의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1~5 ¹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셨네. ²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던고 서게 해 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³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⁴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⁵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6

수요일

마가복음 11:27~33

오늘의 찬송 278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말씀 속으로

-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They arrived again in Jerusalem, and while Jesus was walking in the temple courts,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came to him.

- 28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authority to do this?”

-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Jesus replied, “I will ask you one question. Answer me, and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나 내게 대답하라

John's baptism -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ell me!”

-
- 31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 32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But if we say, 'From men'....(They feared the people, for everyone held that John really was a prophet.)"

- 33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사람들은 상식에 기대고, 지위에 힘을 얻습니다(27~29).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 중에서 다음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2:19) 자연스레 사람들은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질 수 있는지를 반문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반응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옛 시대의 관점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까닭에 성전에서 수종들며 섬기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정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 다시 한번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28절) 그들이야말로 전통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분명한데, 도대체 예수란 자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다 못해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지 공격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2.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기대어 말씀합니다(30~33).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30절) 권위를 따지며 대답을 요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주님이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곤욕당하실 이유가 없고,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를 추종하는 무리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31~32절). 자신들의 안위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간파하시고 던지신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상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 갑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33절) 여기서 우리는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언급된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이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지를 물으시며, 새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여전히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안위가 위협받자 권한을 따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니까? 크고 작은 자를 논쟁하고, 권한으로 서열을 나누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되짚어 봅시다.
2.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사고,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날마다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8:25~28 ²⁵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²⁶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²⁷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²⁸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즈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He then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pit for the winepress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 2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to collect from the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 3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But they seized him,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 4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Then he sent another servant to them; they struck this man on the head and treated him shamefully.

-
- 5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He sent still another, and that one they killed. He sent many others; some of them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 6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He had one left to send, a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all,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 7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But the tenants said to one an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 8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 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 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Haven't you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 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 12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Then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12:10 시 118:22 이하

**12:10 모퉁이의 머
릿돌**

건물의 꼭대기를 완성
할 때 사용하는 돌이다.
시편 118편에서는 다윗
의 후손으로 올 왕을 상
징하는 표현으로 사용
되었는가 하면, 유대 전
통에서 모퉁이의 머릿
돌은 성전을 회복할 때
시아를 상징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때가 이르자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냅니다(1~8).

예수님이 열매 없는 삶 곧 진실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경고하시는 가운데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른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에 갑니다(1절). 시간이 흘러 ‘때가 이르자’, 주인이 농부들로 하여금 소출의 얼마를 얻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종은 심히 구타를 당하고 다른 종은 능욕을 당하는가 하면, 또 다른 종은 급기야 죽임을 당합니다(3~5절). 성경은 ‘많은’ 종들이 그러했다고 밝히며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인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비춥니다(6절). 그러나 아무리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완악한 농부들에게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결국 소출을 얻고자 찾아온 그마저도 죽임을 당하며 내버려지고 맙니다(7-8절). 잔인하게 살인을 범행하면서까지 농부들이 얻고자 한 것이 주인의 밭이었는지, 아니면 소출이 없는 스스로의 죄를 숨기려 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2. 진리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생깁니다(9~12).

물론 종들에 이어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한 데에는 농부들의 탐욕이 한 몫 했을 것입니다. 주인만 사라진다면 어렵지 않게 포도원이 그들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장사꾼의 집으로 전락한 성전을 청소하시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완악한 마음을 비난하신 흐름 속에 농인 이 비유는 소출을 맺지 못한 농부들의 현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주인의 아픔을 헤아리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죄인을 위하여 한 알의 밀로써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사심과 죽음심, 부활 그리고 때가 이르러 다시 오실 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채워지고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10~11절). 그러니 인류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두려워할 뿐입니다(1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 11장부터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르는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고발하며, 구원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겸손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 진리 앞에서 도망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와 가정, 교회 안에 두려움이 진리를 가로막고 거짓이 진실을 덮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4:1~6 ¹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²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³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⁵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⁶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Later they sent some of the Pharisees and Herodians to Jesus to catch him in his words,

- 14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꺾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They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e know you are a man of integrity. 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 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Should we pay or shouldn’t we?”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he asked.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look at it,”

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They brought the coin,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17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12:14 세금

주후 6년에 로마는 공물을 직접 거두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부 유대인은 이 제도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12:15 데나리온

은전의 명칭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합심합니다(13~15).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표적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힘을 합하여 권위를 따지려는가 하면(11:27~33),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트리는 일에 마음을 합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곳에서 소개되는데 마가는 시작부터 그들 안에 도사린 마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13절) 본래는 원수지간에 속한 사람들인데 주님을 향한 반감 아래에서 뽄뽄 뽄치는 장면이 우습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14절) 질문의 동기를 읽으신 주님이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오도록 명하십니다(15절). 예수님 앞에 놓인 데나리온 하나에서 세상 권세보다 높으신 주님의 권세가 이미 드러나는 듯합니다.

2.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16~17)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헤롯당 간에 대화가 다시 한번 오갑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입니다.”(16절) 놀랍게도 주님은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로마에게 반감이 가득한 유대인의 분노를 사겠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의도 앞에서 동전에 새겨진 ‘형상’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 이들의 고백에 맞서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우치시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즉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바치는 일이 마땅하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바 된 인간이라면 세상 권세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이 마땅하다는 선포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1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생명을 죽이고자 원수가 하나되는 역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분노와 악의, 살인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나는 무엇에 이끌리어 살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은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와의 통치를 받는 삶을 담대히 보여 주십니다. 주님이 사신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끄시고 수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을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4:8~12,22 ⁸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
워지겠느냐? ⁹ 귀를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빛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¹⁰ 못 나라를 꾸
짚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못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¹¹ 주님께서는, 사
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¹² 주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
이 많은 사람입니다. ²²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You have gone far enough, O princes of Israel! Give up your violence and oppression and do what is just and right. Stop dispossessing my peopl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 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You are to use accurate scales, an accurate ephah and an accurate bath.

- 11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The ephah and the bath are to be the same size, the bath containing a tenth of a homer and the ephah a tenth of a homer; the homer is to be the standard measure for both.

12 세겔은 이십 게라니 이십 세겔과 이십오 세겔과 십오 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The shekel is to consist of twenty gerahs. Twenty shekels plus twenty-five shekels plus fifteen shekels equal one mina.”

13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This is the special gift you are to offer: a sixth of an ephah from each homer of wheat and a sixth of an ephah from each homer of barley.

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 (십 밧은 한 호멜이라)

The prescribed portion of oil, measured by the bath, is a tenth of a bath from each cor (which consists of ten baths or one homer, for ten baths are equivalent to a homer).

15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떼 이백 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Also one sheep is to be taken from every flock of two hundred from the well-watered pastures of Israel. These will be used for the grain offerings,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to make atonement for the peopl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All the people of the land will participate in this special gift for the use of the prince in Israel.

17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지니라

It will be the duty of the prince to provide the burnt offerings, grain offerings and drink offerings at the festivals, the New Moons and the Sabbaths - at all the appointed feasts of the house of Israel. He will provide the sin offerings, grain offerings,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to make atonement for the house of Israel."

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n the first month on the first day you are to take a young bull without defect and purify the sanctuary.

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The priest is to take some of the blood of the sin offering and put it on the doorposts of the temple, on the four corners of the upper ledge of the altar and on the gateposts of the inner court.

20 그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You are to do the same on the seventh day of the month for anyone who sins unintentionally or through ignorance; so you are to make atonement for the temple.

21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 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In the first month on the fourteenth day you are to observe the Passover, a feast lasting seven days, during which you shall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22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On that day the prince is to provide a bull as a sin offering for himself and for all the people of the land.

23 또 명절 칠 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Every day during the seven days of the Feast he is to provide seven bulls and seven rams without defect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and a male goat for a sin offering.

45:20 그달 칠 일

칠십인 역본에는, 칠월 초하루

- 24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씩이며

He is to provide as a grain offering an ephah for each bull and
an ephah for each ram, along with a hin of oil for each ephah.

- 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 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During the seven days of the Feast, which begins in the
seventh month on the fifteenth day, he is to make the same
provision for sin offerings, burnt offerings, grain offerings and
oi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부요한 나라에는 왕과 백성의 책임이 따릅니다(9~17).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중에 6~7절은 분배받을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족속 다음으로 왕을 지목합니다. 이 순서는 왕이 과연 어떤 자인지를 말해 줍니다. 즉 백성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단락은 통치자의 부정한 행위를 끊어 내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위한 통치 법칙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저울, 고물이나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 예바, 포도주 같은 액체를 측정하는 기구 밧이 차례로 언급되며 도량형의 바른 사용이 명령됩니다. 생명이 부요해지는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땅의 모든 백성은 수입으로 얻은 밀과 보리 한 호멜마다 1/6을, 기름은 한 고르당 1/10 밧을, 가축의 경우에는 이백 마리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물로 바칩니다(13~15절). 그 예물이 군주를 통하여 제사 제물로 쓰임받으며 땅에서의 예배가 이어집니다(17절).

2. 성경은 속죄를 강조합니다(18~25).

본 단락에는 군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를 섬긴 주요 명절이 소개됩니다. 첫째 달 초하룻날이면 왕은 흠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성전 문설주를 비롯하여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덧씁니다(18~19절). 한 해의 시작에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그달 칠 일, 안식일에도 성전 정결 의식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날에는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한 속죄를 통하여 피 흘린 땅에 대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두 절기는 이어 첫째 달 14일 유월절로 나아가고, 칠 일에 걸친 이 기간에 왕은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날마다 바칩니다. 그때에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떼며 왕과 더불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앞에 올려 드립니다(2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하나님은 군주의 통치 법칙을 말씀하면서도 백성의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도자와 시민이 생명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서로 하나되기를 기도합니다.
2. 본문은 속죄가 필요한 이 땅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죄를 논하고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5:4~7 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⁵ 주님께 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⁶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⁷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수피아홀은 1908년 시작된 수피아여학교가 1911년 지은 지상 2층의 벽돌 본관 건물로, 미국의 스텐스 부인이 동생 스피어를 위하여 내놓은 기부금으로 지어졌다. 선교사들은 이를 기념하여 '수피아홀'이라 명명하고 학교 이름도 수피아여학교라고 불렀다. 수피아홀은 일제 강점기 내내 수피아의 교사로 사용되었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일제가 루트와 닛슨 등 여선교사들을 감금시킨 장소이기도 하다. 해방 후에는 전남고등성경학교와 광주기독교간호전문학교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수피아여고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수피아홀에 100주년 기념관을 꾸며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민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유적> 중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들뱅이 www.honggoon.net



30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4/30~5/6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
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시 140:1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진실하신 영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세밀히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불신과 의심,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누추함과 벌거벗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구원의 확신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3. 14(화) 새벽기도회 중에서



<이니셰린의 밴시>을 통해 본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인간관계

글 황영미 (집사)



기독인들은 가슴 한편에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이해하는 ‘열린 방’을 마련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손절 문화에 대한 성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 3:13-14)

최근 ‘손절’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어의 어원은 주식시장에서 쓰이던 ‘손해(損害)’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낸다는 데서 나온 것이었지만, 순우리말 ‘손^手을 끊는’다’로 바뀌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요즘 불편한 관계는 유지하기보다 쉽게 손절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지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드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이 있는 인간인데,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은 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기독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 사람과 쉽게 손절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그의 입장에서 문제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화 <이니세린의 뱅시>의 상황

절친인 두 사람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말로만 손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가락을 끊어 버리는 영화가 최근 개봉했다. 지난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 볼피컵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골든글로브 영화 부문 작품상(뮤지컬코미디), 남우주연상(뮤지컬코미디), 각본상까지 수상한 ‘이니세린의 뱅시’다.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편집상 등의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비록 무관에 그쳤지만 한 영화에서 배우 부문 후보가 네 명이나 나온 것으로 봐도 연기 면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영화다. 재기 넘치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마틴 맥도나가 연극으로 상연됐던 원작을 바탕으로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블랙코미디다.

이 영화는 영국이 물러난 후 일어난 아일랜드 내전 시기, 평온하고 아름다운 가상의 어느 외딴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를 치며 우유를 팔아 살아가는 파우릭(콜린 파넬)이 평생 절친이었던 콜름(브렌든 글리슨)에게서 갑자기 그들의 우정을 끝내자는 절교를 선언받게 되면서 서로에게 초래된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한다. 매일 땀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그들의 관계가 악화되자 조용했던 섬마을 사람들 모두가 당황스러워한다. 심지어 파우릭의 여동생 시오반(케리 콘돈)도 콜름을 찾아가 파우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권유하는가 하면, 파우릭은 그와 친한 말쑥꾸러기 도미닉(배리 키오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콜름의 태도는 점점 더 완강해질 뿐이다.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캐묻는 파우릭에게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작곡을 하는 콜름은 “그냥 자네가 지루해서 싫어졌어”라면서 남은 생을 작곡과 연주에만 몰입하려고 하니, 시시한 대화나 나누는 관계는 유지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한다. 이해가 안 된다며 자꾸만 집에 찾아오는 파우릭에게 콜름은 경고를 무시하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자신의 왼손 손가락부터 잘라버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영화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다. 작품성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한마디로 불친절한 영화다. 우선 콜름이 관계를 손절하고자 하는 이유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타인이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본인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꾸 콜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파우릭에게도 공감하기 쉽지 않다.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해 아일랜드인들이 목숨을 다해 힘을 합쳐 싸웠는데, 1932년 경 영국이 물러나자 아일랜드 내전이 발생한 상황이 시대 배경인 것으로 보아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적이 되는 상황의 알레고리(풍유)로 보인다. 어쩌면 이처럼 공감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라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른다.**

‘밴시’는 죽음을 부르는 아일랜드 전설 속 마녀다. 이 영화에는 밴시 같은 존재인 맥코믹 부인(셀라 플리튼)이 수시로 등장하며 사람들의 일을 예견한다. 제목에 ‘밴시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인간 관계

영화에서 콜름이 자신의 예술 세계에 몰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손절하는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는 지금 타인의 삶에 너무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곤하다는 것이다. 물론 점차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개인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자세는 개인적인 삶보다는 타자, 특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2~3)

콜름이 자신과 손절하지 않고 계속 귀찮게 한다고 손가락을 자르며 엄포를 놓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파우릭은 콜름집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일 오후 1시에 불을 지를 것이니 피하든지 안에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다. 파우릭은 정해진 시간이 되자 콜름의 집에 불을 지른다. 파우릭은 콜름이 손가락을 자르는 자해를 해도 처음에는 관계를 개선하고자 콜름의 행동을 참아왔다. 그러나 자신이 가축처럼 아끼는 당나귀가 잘린 콜름의 손가락을 먹고 죽게 되자 화끈에 콜름 집에 불을 지르려는 것을 보면, 그도 겹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한 것은 아니다. 콜름과 파우릭은 이후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 서로 아끼던 가축이나 개에 대한 얘기를 애둘러 하면서 능청스럽게 화해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이며 작가인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은 닫힌 방에 들어가 고립돼 있는 세 사람이 서로의 갈등이 극에 달해 "타인들은 지옥이야"라고 외치는 말로 유명하다. 반면에 이 영화에는 성모상이 가끔 등장하고 성가가 OST로 사용되는 등 가톨릭 인구가 많은 아일랜드의 종교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타인들이 지옥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은 가슴 한편에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이해하는 '열린 방'을 마련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이니세린의 뱀사> 공식 스틸 이미지

- 이 글은 일간스포츠 '황영미 시네뷰'의 2023.03.16. 필자의 비평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3150048>)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글 교회학교





유치1 김지유 가정

성경학교에서 배운 사도신경을 하루종일 흥얼흥얼 하며 부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유아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



유치2 금규 가정

이번 봄성경학교 감동이었어요!! 우리 금규가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아유치3 황주는 가정

봄성경학교 즐겁고 신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도신경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주먹밥 만들기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도 또 만들어 먹었어요~)



유년1 이시연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된 겨울성경학교에서 연극도 보고, 보물 찾기도 하고, 점심도 감사히 먹었어요. 재밌었고, 다음 여름성경학교도 기대되요.



유년2 이채운

처음 입장할 때 선생님들께서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재미있는 율동과 찬양을 해서 행복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초등1 정세영

유치부 때부터 매년 여름/겨울 성경학교를 참여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등2 이소망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재미있었지만 코로나가 풀린 뒤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드리니까 더 재미있었고, 추억도 많이 쌓고 믿음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소망수양관에서 하는 성경학교가 더 기다려져요.



소년 박주원

성경학교를 통해 이세집 막내아들 다윗의 인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년2 강지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서 좋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아동부 이영도

초대한 친구들이 재밌다고 계속 영어아동부에 함께 온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중등1 성다은

'1&Only'를 주제로 하는 겨울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부가 다같이 모여 찬양하고, 은혜되는 실교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진흙이던 우리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중등2 이예은

'하나님은 바로 주신다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원망하고 없으시다고 믿었던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등1 백경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2 조해성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심으로 한층 더 기를 수 있었고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은혜롭고 의미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대학부 박호정 자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되살아나고 대학부와 함께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청년부 정준희 자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맴도는 신앙이 아닌 정말 제 자신이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청년플러스 문재식 전도사

모든 것 비워낼 때,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겨울수련회였습니다.



소망부 오지웅 전도사

영혼의 닳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화이야기 16

4월, 우리의 고백



2월 26일

글 최창실 (권사)

사순절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3·1절 104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함께 표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아름다운 손길들이 하나로,
예배를 돕는 헌화를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은혜 누리길 기도합니다.



3월 5일

글 김경은 (집사)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하고 잠잠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3월 12일

글 이영주 (집사)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순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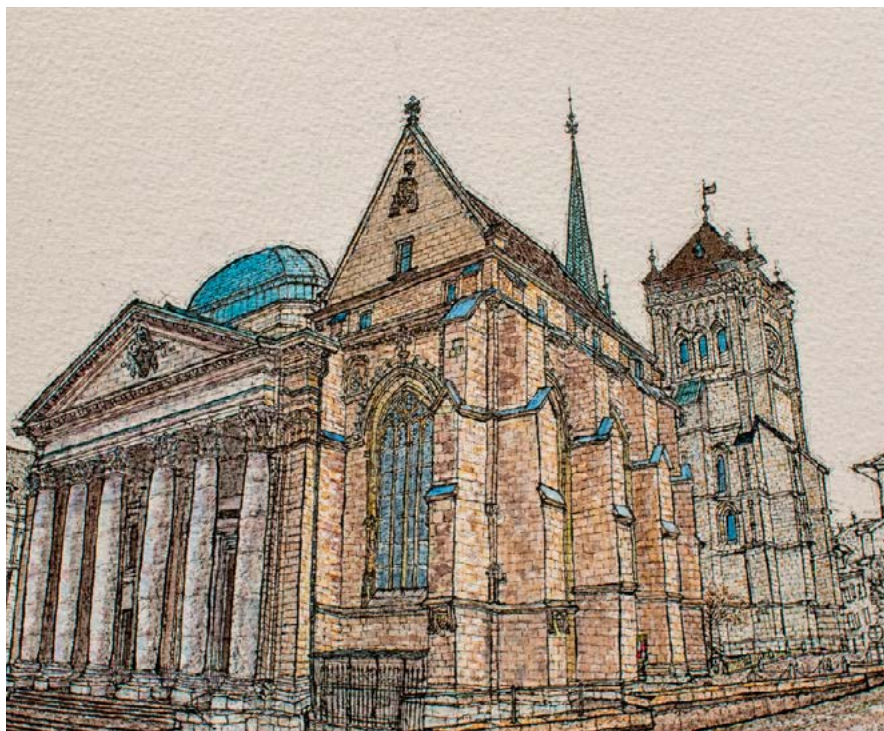


그림 1

[그림1]은 칼뱅이 사역했던 제네바 생 피에르 교회다. 1538년 4월 제네바를 떠났던 칼뱅이 3년 7개월 만인 1541년 9월에 생 피에르 교회 목회자로 귀환했다. 칼뱅은 이때부터 1564년 5월 27일 숨을 거둘 때까지 23년 동안 제네바의 목회자·개혁자·교육자로 살았다. 2년 남짓한 제네바 1차 사역(1536-1538)까지 합치면 25년간 제네바에서 사역한 셈이다. 이로써 제네바는 칼뱅의 도시가 되었고, 칼뱅은 제네바의 영혼이 되었다.

정면이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빼닮은 생 피에르 교회는 이름 그대로 '성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이다. 1160년 착공하여 1232년 완공된 건축물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증개축하면서 시대에 따른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었다.

칼뱅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설교단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역설했다. 설교단 근처에는 그가 사용했다는 '칼뱅 의자'가 놓여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 칭의

와 성화,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변화 모두를 강조했던 칼뱅의 통전적 노력은 제네바를 종교 개혁의 모범 도시로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로마가 가톨릭교회에서 갖는 중심적 위치에 견주어, 제네바를 ‘프로테스탄티즘의 로마’라 부르기까지 했다.

칼뱅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예배예식서, 교회헌법을 제시했고 제네바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구성된 치리 기구인 ‘콩시스투아르’를 만들었다.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종합구빈원’과 ‘프랑스기금’을 설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명실상부 제네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도시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1556년 제네바를 방문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는 이 도시를 가리켜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며 감탄했다. 녹스는 칼뱅과 함께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1559년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 ‘신앙고백서’와 ‘교회치리서’를 제시했다. 의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국가가 되었다.

생 피에르 교회를 방문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칼뱅 강당’과 왼쪽에 있는 ‘종교 개혁 기념 박물관’도 함께 둘러보길 바란다. 칼뱅 강당은 칼뱅이 성경을 가르치던 곳인데, 영어권 피난민들이 녹스와 함께 예배했던 예배당이기도 하다. 그래서 ‘녹스 채플’이라고도 불린다. 종교 개혁 기념 박물관에서는 제네바 종교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 피에르 교회에서 가까운 ‘칼뱅 거리’에서는 칼뱅이 1543년부터 156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던 자택도 볼 수 있다.

[그림2]는 제네바 구시가지 성벽 아래쪽 바스티옹 공원 벽면에 세워진 종교 개혁 기념 조형물 중 일부이다. 이 조형물은 칼뱅 탄생 400주년이자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 350주년이 되는 1909년에 착공하여 1917년에 완성되었다. 길이 100m, 높이 10m의 거대한 기념비 한복판에 네 명의 개혁자가 서 있다. 그리고 파렐, 칼뱅, 베자, 녹스의 이름이 보인다. 제네바 종교 개혁에 끼친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 칼뱅 석상은 다른 석상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앞에 세워졌다. 석상들 아래에는 ‘IHS’라는 모노그램이 보이는데,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ΙΗΣΟΥΣ ΧΡΙΣΤΟΣ를 뜻하는 단어의 앞 글자들을 따왔다. 네 석상 좌우에는 종교 개혁과 연관된 다양한 인물들이 조각되었으며, 제네바 종교 개혁 표어인 ‘Post Tenebras Lux’(어둠 후에 빛)라는 라틴어가 새겨졌다.



그림 2

칼뱅은 프랑스인이지만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따라서 칼뱅의 무덤도 제네바의 플랭팔레 공립 묘지에 있다. 칼뱅 후계자인 테오도뤼스 베자가 장례식 때 바친 송가^{頌歌} 한 구절은 칼뱅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 준다.

존경하는 칼뱅이 먼지로 돌아가나니
 그에게서 덕을 배울지라.
 퇴락하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할 그가
 이제 선인들의 통곡 속에 숨졌도다.
 비열한 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그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조그만 무덤 속에 누워 있구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채로.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뒤러_종교개혁

글 허윤정 (집사)



종교 개혁은 정관사 'the'를 붙이고 대문자를 사용하여, 'the Reformation'이란 고유명사로 명명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16세기 초반 가톨릭교회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자금 조달로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면벌부는 말 그대로 죄에 따른 벌을 사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95개 조문>을 통해 면벌부와 교황을 비판하며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95개 조문>이라는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교회 중심의 중세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르네상스와 함께 세속 권력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강조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미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독일 작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2-1528}의 제단화를 통해 종교 개혁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뒤러, 목주기도의 축일, 1506

제단화는 시각적으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주 제단 뒤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패널화로 주로 성서 속 이야기나 인물, 순교자, 성인을 그렸습니다. 그림 1은 <목주기도의 축일> 제단화로 가운데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각각 황제와 교황이 그녀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와 성모가 이들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있는 이 장면은 성모자가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능가하는 천상의 권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작품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오른쪽 끝에 “1506년 5개월 만에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종이를 든 뒤러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작가들이 성화 안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기 시작하는데, 뒤러는 다른 인물을 대신하여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려 넣어 르네상스 화가로서의 자의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526년에 제작된 그림 2 <네 사도>도 뒤러의 제단화인데 그림 1의 제단화와는 사뭇 다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 <95개 조문>으로 종교 개혁의 포문을 연 지 9년째 되던 해의 작품입니다. 뒤러의 고향은 뉘른베르크로 종교 개혁의 포문을 연 비텐베르크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1525년에 공식적으로 루터교로 개종하였고, 이 작품은 그 다음 해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성모와 가톨릭 성인 그림은 금기시되면서 선례가 없는 제단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마가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인물의 배치입니다.

왼쪽 패널에는 붉은색 망토를 입은 젊고 늑름한 요한이 머리 숙여 독일어 성경을 읽고 있으며, 그 뒤에는 천국의 열쇠를 든 베드로가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지만 작품 속에서 그의 권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깊은 이마의 주름과 두드러진 혈관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의 회한이 드러납니다. 요한은 루터가 가장 좋아한 복음서 저자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을 젊고 늑름하게 부각시킴으로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교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 패널의 전경에는 날 선 검과 성경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서 있으며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그의 뒤에는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있는 마가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두루마리는 바울이 들고 있는 성경에 비해 작고 초라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증언합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 어느 제자보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날카로운 눈, 성경과 긴 칼 그리고 회색 겹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 뒤러는 ‘오직 믿음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명의 인물 배치는 모호합니다. 아마 뒤러는 ‘오직 말씀’이라는 루터의 강령을 떠올리며 성경을 집필한 자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인물들 밑에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서 각 저

자와 관련 있는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뒤러는 사도 요한과 바울을 전면에 부각 시킴으로써 가톨릭교회의 질서나 역사적 예수보다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강조한 종교 개혁의 정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뒤러는 교회의 주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으며, 루터교를 수용한 뉘른베르크 청사에 이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르네상스 시기의 높은 자의식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림2 뒤러, 네 사도, 1526

[그림 출처]
그림1. https://en.wikipedia.org/wiki/Feast_of_the_Rosary#/media/File:Albrecht_D%C3%BCrer_-_Feast_of_Rose_Garlands_-_Google_Art_Project.jpg
그림2. https://en.wikipedia.org/wiki/The_Four_Apostles#/media/File:Albrecht_D%C3%BCrer_026.jpg
https://en.wikipedia.org/wiki/The_Four_Apostles#/media/File:Albrecht_D%C3%BCrer_027.jpg

100세 시대, 생애 주기별 구강 건강 관리

글 이원유 (장로)





현재 인류는 호모 헨드레드. 과학의 발달로 인간 수명은 100세를 넘어 요즈음 출생하는 아기들은 평균 수명이 120세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입구에 있는 우리나라도 장수라는 단순한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N에서 분류하는 바, 출생에서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 18~65세는 청년, 66~80세는 장년, 81~100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년으로 나눕니다.

생애 주기별로 구강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구강이 전신질환 특히 성인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 내과학회에서 성인병을 치료하면서 구강 질환도 함께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의 유해균이 호흡과 모세 혈관을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파되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노년 사망의 주된 원인인 폐렴도 구강 세균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 유해균이 많으면 당뇨병은 6배, 뇌졸중은 3배, 심내막염은 3배 증가하며, 임신부에게는 조산과 저체중 미숙아 위험이 7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요즘 치과계 화두가 되고 있으며 노년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강 노쇠 현상'입니다. 구강 건조증, 교합력 감소, 삼키는 기능의 저하입니다. 잘 씹고

삼키지 못하면 생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강 노쇠 현상을 막을 수는 없으나 잘 관리하면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 근육 즉 혀와 뺨의 운동 등을 통하여 교합력 증진, 침 분비 촉진 등으로 구강 노쇠를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약 7년을 병상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즉 거동 불편으로 병상에 누워 연명하는 돌봄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1/3에 해당하는데, 구강 노쇠는 이런 돌봄 노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중합니다. 또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은 치아 주위염이며, 이로 인해 치아 상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노인의 치아 개수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여 80세까지 20개 이상의 치아 유지하고자 '8020운동을 편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식후 칫솔질하기, 치실이나 구강 세정기도 같이 사용하기.**

둘째, **달고 끈적이는 음식 피하기.**

셋째, **정기적인 불소도포 또는 불소 용액으로 입을 행구기.**

넷째, **구강 유해균 억제를 위한 구강 유산균 복용하기.**

다섯째, **노쇠 현상을 막기 위한 구강 근육의 강화와 스트레칭하기**

(예 : 혀와 뺨 운동과 턱을 포함한 목 어깨의 운동과 스트레칭).

잘 쓰지 않는 혀나 뺨을 이리저리 돌리고 놀리는 운동은 구강 주위 기관 즉 침샘과 림프샘을 자극하여 침의 분비와 림프샘의 활동을 돕고, 목 어깨 턱 근육의 스트레칭은 얼굴 통증과 두통의 해소, 저작계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해지려면 영양 섭취도 잘 해야 합니다. 소화 기관의 첫 관문인 구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모든 생애 주기에서 필요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유아기**에는 구강 위생 습관 배우기를 잘 해야 합니다. **학령기**에 서 칫솔질, 불소도포, 주기적 치과 방문으로 충치와 잇몸 염증을 예방해야 하며, 부정교합 치료가 필요합니다. **청년기**에는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장년기**에는 충치와 치아 주위염으로 치아 수복과 관리, 상실 부위의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치아의 마모와 파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인은 특히 당뇨와 고혈압 등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구강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체로



노년기에서는 청년기보다 검진이 자주 필요하며, 최소 3~6개월마다 치석 제거 및 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 127:1)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위협, 미국 은행의 파산과 인플레이션, 불의가 오히려 당당한 정치, 뒤숭숭한 2023년 사순절입니다. 겨우내 시름을 잊고 봄의 교향악을 듣는 계절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과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3월 첫째 주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소망교회 교회학교가 지난 2월과 3월 겨울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개최했다. 고등부는 '원 앤 온리 I&Only', 소망부는 '소망의 닻'을 주제로 2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소망수양관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다. 소망부원들은 수양관에서 미니올림픽, 마술 공연 관람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학습을 함께 즐기며, 믿음의 닻을 삶 속에 내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했다. 고등부는 GBS 프로그램과 코너 학습을 통해 하나님 안에 서로를 알아가며 친교를 나눴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고, 저녁 집회에 이어 기도회를 가졌다. 중등부도 같은 주제로 2월 24일과 25일 수양관에서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일러스트 베니 구경선 작가를 초대해 간증을 듣고 뜨거운 예배의 밤을 가졌다. 유치부 봄성경학교에서는 '사도신경-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다. 유년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란 주제로, 초등부와 소년부는 성경통독,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이새집 막내아들 다윗이 되어 보는 경험을 했다. 대학부는 'RE:MEMBER', 청년플러스는 '인생경영', 청년부는 '몰랐어? 속죄와 윤리는 하나야!'를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가졌다. 소망의 학생과 청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길 소망한다.



3월 셋째 주

2023 전반기 구역 지도자 수련회



소망교회 18개 지구를 섬길 1,023명의 교구장, 구역장, 권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월 3일,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가졌다. 이재용 목사의 인도 아래, 교육 1부 교역자들이 찬양을 이끌었고, 윤환 목사가 대표해 기도했다. 김경진 담임 목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갈 6:7-10)는 제목으로 구역 지도자들이 구역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여러 덕목에 대해 전했다. 잘난 제하지 말 것, 서로 노엽게 하지 말 것, 질투하지 말 것을 강조했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루하루 주님 나라를 세우고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가꾸 나갈 것을 권면했다. 축도 후, 올 한 해 16개 지구와 3040지구, 온라인 지구를 맡은 담당 교역자를 소개했다. 구역 지도자들과 담당 교역자들은 서로를 뜨겁게 환영했고, 이후 각 처로 흩어져 지구별 모임을 가졌다.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다시 모인 구역 지도자들은 함께함으로 힘을 얻었으며, 성령으로 심고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소망의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늘 기쁘고 행복하며,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은혜 주시길 기도한다.



2023 | 04

발 행 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이경희

김영규

홍성민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위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3월 25일(통권 136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q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4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피로회복

season3

‘피로회복’ 프로젝트는 사순절 기간,
건강한 절제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독일 개신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일곱 주간의 포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미디어 금식, 금주, 간식 중단,
탄소 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절제하였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및 참여 방법

회복의 일곱 주간(사순절) 2023. 2. 22(수) - 4. 8(토)

경건과 절제의 삶 통한 건강한 몸과 재정 준비하기

사랑의 실천 주간(부활절) 2023. 4. 9(주일)

건강한 몸으로 헌혈(부활절, 본당 앞 헌혈 차량 / 가까운 혈액원) 또는
재정으로 이웃 사랑 실천하기(연세의료원과 함께하는 희귀난치병 환우 지원)



신청서 QR 코드

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